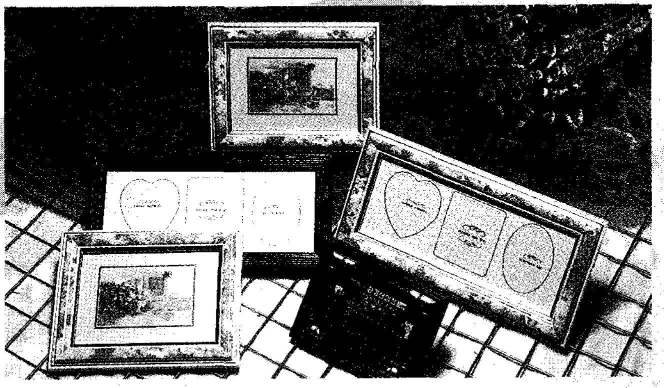
페스티로폴을 재활용한 사진액자 730만 달러 수출



소홀히 여겼던 자원 재활용의 중요성을 다시금 되새길 수 있는 작은 사건(?)이라고밖에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다. 썩지도 않을 뿐더러 부피만 덩그라니 큰 쓸모없는 존재로 여겨지던 폐스티로폴이 재활용돼 730만 달러의 수출 실적을 기록했다. 그것도 폐스티로폴을 원료로 했으리라고는 짐작조차 할 수 없는 예쁜 사진액자 형태로….

투자 비용이라고는 폐자원과 노동력이 전부인 상태에서 스티로폴을 재활용하여 만든 사진액자로 87억 원 이상의 외화를 벌어들인 셈이다. 자동차 1,000대의 수출 실적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 하지만 기존 스티로폴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단번에 바꿀 만한 획기적인 사건임에 틀림이 없다.

IMF를 이겨내는 수출 역군, 재활용 사진액자

우리 생활의 모든 패턴을 10년 전으로 되돌려 버린 IMF 기간. 국민들의 생활 면면을 한 단계 후퇴하게 만든 것이 이 기간이라면 사회 전반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힌 기간도 역시 이 기간이다. 액자 소비가 눈에 띄게 위축된 IMF 기간, 업계의 관심사는 자연 수출에 초점이 맞추어 졌다. 내수 시장의 감소와 치열한 업계 경쟁 상황을 탈피하기 위해 업계 전체가 수출 확대와 새로운 수출 시장 개척에 주력했다. 특히 폐스티로폴을 재활용한 사진액자는 획기적인 원가 절감과 이를 통한 가격 경쟁력으로 눈에 띄는 수출 신장세를 보였다.

재활용 사진액자의 수출 호조는 단순한 수출 실적의 비교 통계보다 내수 시장에서 기존 알루미늄 액자나 원목 액자의 수입 대체 효과라는 보이지 않는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다. 엄밀히 따진다면 엄청난 외화의 낭비를 막음과 동시에 외화벌이의 역군으로 당당히 제 몫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환경 보전의 중요성이나 자원 재활용의 당위성을 설명하기에 앞서 힘든 IMF 시기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는 경제 회복 원동력으로서의 역할에 먼저 가치를 둘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다.

더욱이 세계 시장에서 재활용 사진액자의 인기는 날로 치솟고 있다. 일부 선진국에서는 필요한 원목 소재를 샘플로 국내 업체에 보내와 그에 맞는 합성수지 사진액자용 몰딩을 요구하기까지 하고 있다. 그만큼 국내 업체들의 디자인 및 가공능력과 재활용 사진액자 품질의 우수성이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 특히 재활용 사진액자는 자원 재활용 측면과 함께 원목이나 알루미늄 등 천연 자원의 훼손을 방지하는 새로운 대체 수단으로도 크게 각광받고 있다.

올 한해 재활용 사진액자의 수출량만을 놓고 볼 때 액자업계에서는 적어도 하루 30톤 이상의 폐스티로폴을 사진액자로 재활용하고 있다. 소형 트럭으로 15대 이상의 분량이 매일같이 재활용되고 있는 것이다.